

## 관상동맥 우회술에서의 대동맥내 풍선펌프 (IABP)의 역할

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,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 
박성식·김기봉·안혁·노준량

관상동맥 우회술에 있어서 수술 전, 후 대동맥내 풍선펌프의 사용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더욱 넓은 적응증이 적용되고있다. 본 연구자들은 관상동맥 우회술 대상 환자들중 수술 전, 후 대동맥내 풍선펌프를 사용하였던 예들을 대상으로 하여 후향적 분석을 통해 임상적 고찰을 하였다.

1981년 1월 부터 1994년 12월까지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받은 총 291명의 환자중 수술 전, 후 대동맥내 풍선펌프를 시행하였던 31례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

총 291례의 관상동맥 우회술중 31례 (11%)의 환자에서 수술전, 수술중 및 수술후 대동맥내 풍선펌프를 시행하였다. 수술당시의 평균 나이는 55.8세 (39~75)였고, 남/여 비율은 19/12였다. 수술전 진단은 불안정형 협심증이 22례 (71%), 안정형 협심증이 6례 (19%)였으며, 심근경색후 협심증이 3례 (10%)였다. 대동맥내 풍선펌프의 적응증으로는 수술중 심폐기 이탈이 어려웠던 경우가 11례 (35%)로 가장 많았으며 수술전에 적용한 경우로는 중증의 3 혈관질환 9례 (29%), 좌주관상동맥 질환 7례 (23%), 좌주관상동맥 질환을 동반한 3 혈관질환 3례 (10%)이었고, 수술후 저심박출증으로 적용한 경우가 1례였다. 수술당시 연결한 혈관의 수는 평균 3.7(± 8)개였다.

대동맥내 풍선펌프의 삽입경로는 모두 대퇴동맥을 통하여 시행하였고 26례 (84%)에서 경피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5례 (16%)에서는 수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. 수술후 거치기간은 평균 17.4시간 (0.5~106시간)이었고, 수술후 대동맥내 풍선펌프 시행기간은 12시간 이내인 경우가 11례, 13~24시간 시행한 경우가 14례, 25~48시간은 4례, 48시간 이상은 2례였다. 수술사망은 2례 (6%)에서 있었다. 대동맥내 풍선펌프의 합병증으로는 하지의 혈전증이 1례 있었다.

관상동맥 우회수술시 심폐기 이탈이 어려운 경우나 수술전 고위험군이었던 환자에 있어 대동맥내 풍선펌프의 사용으로 최소의 위험도로서 심기능 보호 및 회복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